

소상공인 대출 장기상환 요구에 市 “논의 중이나 소급적용 어려워”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지원 필요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 촉구 市, 금융기관과 세부조율 등 검토

서울시가 착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융자금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소상공인 대출 융자금을 갚는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 제한 정치 방벽으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됐다"며 "저와 제 가족은 생계를 위해 빚쟁이가 돼 지옥 같은 3년을 대출을 받아가며 버텼다"고 하소연했다.

민원인은 매달 성실하게 귀한 돈을 돌려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융자금을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이자로 장기간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son@

것이다. A씨는 "이 나라는 세금 따박따박 내가며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서 10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정치적 혼란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별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시중 은행 협력 자금' 1조7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 통장'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조건은 자금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1년 거치 2(3·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등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소상공인 정책과는 "장기 상환의 경우 금융 기관과 실제 적용 가능 시기, 자금상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장기 상환이 시행된다면 기존 대출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참여 돕는다

도봉·양천구에 '초로기억카페' 개소 치매환자 사회적 고립 해소, 참여 도와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카페 운영에 참여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로기억카페'를 도봉구와 양천구에 추가로 개소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로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춘 초로기억카페는 스마트팜 수경 재배원에 프로그램(주 1회)과 카페 운영을 통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주 2회)을 접목한 형태로 12주간 진행된다.

도봉구 초로기억카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도봉구 마들로 650) 4층에 위치한다.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을 관리하며, 초로주스와 건강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다. 양천구치매안심센터(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1층에 자리한 양천구 초로기억카페에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팀을 이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강서구에서 초로기억카페 1호점을 운영한 결과 환자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로기억카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차별 없는 복지' 기본사회 시동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본사회'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운행하며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였다.

파주시는 2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도시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신설된 기본사회팀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기본소득'으로 적용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저축액 3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 종잣돈 마련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포함

서울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아동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인원을 전년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약 14배, 투입 예산은 작년 37억원에서 금년 276억원으로 7.5배가량 늘렸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로도 불린다. 본인 또는 후원자가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훈련 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복지포 누리집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디딤씨앗통장은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교대·교원대 11곳 중 9곳에 'A등급'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역량 진단 9개 학교에 A등급, 2개교에 B등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대학 10곳과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9개 학교에 A등급을, 2개교에 B등급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는 B등급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A등급 대학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B등급은 '현행 유지' 조치를 받게 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양성 정원의 30%, 절반을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E등급은 '기관 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평가에서 C~E 등급이 매겨진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 교원을 기르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역량 진단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세부 지표는 전공과목 전임 교원 확보율, 수업 운영의 적절성, 학생 지도 체제 구축 및 개선 계획, 재학생 만족도를 포함 총 23개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7일 (화) 음력 : 12월 8일

수도권 날씨 -6 ~ 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7:47 | 해질 17:30

지역별 날씨: 연천 -11/0, 동두천 -10/1, 가평 -11/1, 파주 -11/0, 서울 -6/1, 양평 -8/1, 인천 -5/1, 수원 -5/1, 용인 -5/1, 평택 -7/1,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미 외교, 北 미사일 도발 재개 규탄...한미동맹 견재 과시
▲트럼프 2기 곳곳에 '親머스크' 인사 포진...“페이팔 마피아” 줄기용”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러 파병 북한군 3800명 사상”
▲이 군, 정전협상 타결 임박에도 가자공격...94회 폭격 184명 살해

▲中, 반부패로 장성 출신 전인대 대의원 우수수 낙마...2년 동안 14명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엄중 항의·중대 우려”